

韓 주도 ‘제주 이니셔티브’ 채택… 21개국 협력 네트워크 작동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한성숙 중기부 장관 국제무대 데뷔
中企 현안 등 한국적 의제 지지·공감
“각국의 혁신 역량 실질적으로 연결”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가장 한국적인 의제들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얻어냈다.

전체 기업체 숫자의 99.9%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회복력 제고, 글로벌화, 혁신 역량 강화, 연결성 확대, 규제 해소,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활용 등이 중요한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내용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참가 21개국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인 후 공동성명서에 고스란히 담았다. APEC 역내 기업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7% 정도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동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6번째)이 지난 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마치고 APEC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MSMEs as Engines of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을 주제로 지난 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한국이 주도해 ‘제주 이니셔티브(Jeju Initiative)’를 채택하고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 당일 저녁 늦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동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문장 하나 하나에 예민한 부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원활하게 선언문을 도출했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마치 하나의 정부가 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책도

유사했고 방향성도 유사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는 (APEC을 포함한) 전세계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채택한 ‘제주 이니셔티브’를 출발점으로 해 연례적인 스타트업 포럼 개최와 함께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회원국 정부, 투자자, 스타트업을 연결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각국의 혁신 역량을 실질적으로 연결하고 성장으로 이어가는 성과지향형 협력 네트워크로 작동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의장국을 맡았다.

중기부 고위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의장국이 먼저 제안한 것을 토대로 회원국 실무진이 수 차례의 미팅과 토론 등을 통해 내용을 다듬고 장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구조”라면서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한 만큼 공동성명서에 포함된 의제 내용 중 60~70% 정도의 지분은 한국 것이 아니겠느냐”고 귀띔했다.

에두아르도 페드로사(Eduardo Ped

rosa) APEC 사무국장은 “한국의 현대와 삼성 같은 대기업도 한때는 중소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등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갈길이 멀고 도전과제도 있지만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중기부 수장으로 지난 7월23일 취임한 한 장관은 이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통해 국제무대에 완벽하게 데뷔했다.

/서귀포(제주)=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성, 非디스플레이 스마트안경 준비… ‘확실한 길’ 택해

내년 출시 목표로 자체 브랜드 개발
“개발 단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메타,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이 디스플레이 스마트안경을 앞다퉈 내놓는 가운데, 삼성은 비(非) 디스플레이 제품을 차세대 디바이스로 준비하고 있다. 시장 진입이 늦다는 시각도 있으나 아직 산업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면 ‘전략적 관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차세대 디스플레이형 스마트안경 ‘하이퍼노바’를 내달 공개한다. 알리바바 역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퀵 AI 글라스’를 연내 출시할 방침이다. 반면 삼성은 화면 없는 비디스플레이 스마트안경을 자체 브랜드로 개발해 2026년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초기 스마트안경 시장은 대부분 비디스플레이 제품 위주로 형성됐다. 메타가



MWC 2025에서 전시된 삼성전자 확장현실(XR) 기기 ‘프로젝트 무한’.

지난 2023년 출시한 ‘레이벤 메타’는 카메라와 AI 기능에 집중한 비디스플레이형 제품으로, 지금까지 200만 대 이상 판매되며 스마트안경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다만 디스플레이의 부재로 인해 알림·정보 표시 등의 기능적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고,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디스플레이 탑재형으로 제품 개발 방향을 바꾸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디스플레이형 스마트안경의 장점은 활용도가 넓다는 점이다. 문자·알림·지도 정보 등을 눈앞에 바로 띄워주는 방식으로 사용자 경험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디스플레이 단가로 인한 높은 가격대가 걸림돌이었으나 메타의 차세대 모델 ‘하이퍼노바’가 800달러(한화 약 111만원)부터 시작해 당초 예상치인 1000달러(한화 약 139만원) 이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알리바바 신제품도 이와 비슷한 가격대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 부담이 완화 추세다.

삼성도 이 같은 흐름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인다. 카메라·스피커·AI 기능을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없는 스마트안경을 자체 브랜드로 개발 중이며, 동시에 구글과 협력해 디스플레이 탑재 XR 헤드셋인 ‘프로젝트 무한’을 공개했다. 타 기업들이 경량화된 스마트안경, 특히 디스플레이 스마트 안경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칫 삼성전자가 시장 진입에 다소 뒤처지고 있다고 읽힐 수 있으나, 업계에서는 삼성의 비디스플레이 전략이 대중성과 시장 성숙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관망’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의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AI 스마트안경 출하량의 약 78%가 아직까지 레이벤 메타와 같은 비디스플레이 제품이었다. 또한 아직까지 디스플레이형 제품이 배터리를 발열 문제를 해결할 만큼 기술이 성숙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삼성이 개발 중인 비디스플레이형 스마트안경이 ‘확실하고 안전한 길’인 이유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차세대 스마트 글라스는 아직 개발 단계이며 출시할 즈음에 제품·산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준 기자 nauta@



경기 구리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코웨이 직영점 전경.

코웨이, 구리 직영점 오픈

롯데백화점 구리점 입점

코웨이가 경기도 구리시 롯데백화점 구리점 7층에 브랜드 체험 및 판매 매장 ‘코웨이 갤러리 롯데 구리 직영점’을 오픈했다.

7일 코웨이에 따르면 코웨이 갤러리 구리 직영점에서는 ‘아이론 얼음정수기 스탠다드·미니·오리지널’ 등 세분화된 얼음정수기 라인업을 기반으로 크기 및 얼음 사용량에 따라 최적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상의 “금융권, 부동산 자금쏠림 현상 심화… 제도 정비 시급”

위험가중자산 가중치 조정 등 제안

금융권에서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통해 금융사들이 첨단산업과 벤처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 벤처캐피탈(CVC) 투자규제 완화 등을 제안

하는 한편, 교육세율 인상, 은행 폐점 신고수리제 등 금융사에 부담주거나 자율성 침해하는 규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원화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지난 2020년 66.6%에서 2024년 69.6%로 상승했으며, 명목 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5.7%로 확대됐다.

현행 규제체계가 이런 쏠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평균 15%인 반면, 기업대출은

75%, 벤처투자는 400%에 달한다. 금융사가 기업대출에 나설수록 재무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한 CVC 투자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일반주회사의 외부출자를 40%, 해외투자를 총자산의 20%로 제한한다. 그 결과 지난해 일반지주 167개사 중 14개사만이 2451억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대한상의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혁신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권에 부담을 더하는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세법 개정 것처럼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할 경우, 60여개 금융회사가 연간 1조3000억 원의 추가세 부담을 안게 된다.

은행 영업점 폐쇄 시 금융당국의 사전 신고수리제를 도입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금 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금융과 혁신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홈쇼핑

‘소재 확인 QR코드’ 도입

홈쇼핑이 QR코드로 진위여부를 확인, 제품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

홈쇼핑은 라이브 홈쇼핑 업계 최초로 의류 상품에 ‘소재 진위 확인용 QR코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 QR코드는 상품의 브랜드 TAG에 인쇄되며 소비자가 스캔하면 해당 상품의 소재 감별 시험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소재 감별 시험은 공신력 있는 KATRI 시험연구원과 협력을 통해 진행해 객관성과 신뢰도를 한층 강화했다.

/김승호 기자